외교부

국제경제동향
(Global Economic Brief)

Vol 2021-11호
다자경제기구과
2021. 8. 26.

※ 표제 <국제경제동향>은 한국은행, OECD, IMF, 국제금융센터 등의 홈페이지 게시 자료 및 언론기사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·정리한 것으로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1 세계 경제 : 2분기 주요국 양호한 성장세

❑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 흐름 지속(한국은행, 국제금융센터)

o **(미국)** 2분기 GDP가 전기대비 1.6%(전기대비 연율 6.5%) 성장하면서 코로나19 이전(2019.4/4분기) 경제 규모를 회복

- 빠른 고용 회복세를 기반으로 개인소비*가 큰폭 증가

  * 음식숙박, 여가, 운송 등 경제활동 재개 수혜 업종의 성장세가 2분기 들어 더욱 확대

- 자동차 등 생산 차질과 이로 인한 재고 감소, 물가상승세 확대에 따른 가계 실질구매력 저하, 신흥국 회복 부진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 등은 성장세 제약 요인

o **(유로지역)** 2분기중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2.0%를 기록하면서 직전 2분기 연속 역성장에서 회복세로 전환

- 이동제한조치 완화에 따라 가계소비 등 내수가 강하게 회복되며 독일(1.5%), 프랑스(0.9%), 이탈리아(2.7%), 스페인(2.8%) 등 주요 국가들이 플러스(+) 성장

- 주요 정책기관들은 경제회복기금 집행, 백신접종 확대에 따라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며 2021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*

  * ECB('21.3월 4.0% → 6월 4.6%), IMF('21.4월 4.4% → 7월 4.6%)

o **(일본)** 2분기중 전기대비 0.3% 성장하며 플러스 전환

- 수출, 설비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생산 차질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* 등으로 제약된 회복세 시현

  * 일본 정부는 도쿄, 오사카 등 10개 지역에 3차 긴급사태 선언(4.25일~6.20일)

o **(중국)** 수출과 소매판매 호조 지속에 따라 2분기 GDP가 전기대비 1.3% (전년동기대비 7.9%) 성장

주요국 경제성장률(%, 전기대비)

	2019	2020					2021	
		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
한국	2.2	-0.9	-1.3	-3.2	2.2	1.1	1.7	**0.7**
미국*	2.3	-3.4	-1.3	-9.0	7.5	1.1	1.5	**1.6**
유로지역	1.4	-6.4	-3.6	-11.4	12.4	-0.6	-0.3	**2.0**
일본	0.0	-4.6	-0.6	-7.9	5.3	2.8	-0.9	**0.3**
중국*	6.0	2.3	-8.7	10.0	2.8	3.0	0.4	**1.3**

* 미국에서는 전기대비 연율이, 중국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통용되나, 여기서는 지역간 경기회복 속도의 비교를 위해 모두 전기대비 성장률로 표시 ** 자료: 각국 통계당국

2 한국 경제 : 기준금리 인상, 고용 5개월째 증가세

❑ 한국은행, 기준금리 인상(한국은행)

o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(0.5%→0.75%)하기로 결정(8.26일)

※ 미국의 정책금리는 0.0~0.25%로 양국간 금리차는 0.5%p~0.75%p

❑ 7월 고용 호조 지속(기획재정부)

o 7월중 취업자수가 비대면·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개월 연속 증가(+54.2만명)

-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, 코로나19 직전 취업자수('20년 2월, 2,751만명, 계절조정) 대비 99.4% 수준 도달(2,735만명).

<경제용어> SDR(Special Drawing Right)

SDR(Special Drawing Right, 특별인출권)은 IMF가 창출하는 대외준비자산으로, 주요 기축통화(달러화, 유로화, 파운드화, 엔화, 위안화)에 대한 잠재적 청구권을 의미한다. SDR은 보유국의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어 각국은 국제수지 악화 등 재정위기 상황에서 필요 시 이를 달러, 유로 등으로 교환 가능하며, SDR 그 자체로도 IMF에 대한 쿼타 납입, 대출금 상환 등에 활용 가능하다.

SDR은 1960년대 파운드위기와 달러불안을 계기로 도입되었으며, IMF는 통상 5년마다(현재는 제11차(2017~21년)) 장기적 국제유동성 보충·감축 필요성, 세계경제의 초과수요·경기침체 여부를 고려하여 SDR 창출 혹은 말소 여부, 바스켓 구성 통화 및 비율 등을 검토한다. 최근 IMF는 취약 국가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력 지원을 위해 약 6,500억 달러 규모의 SDR 확충을 실시하였다. 2021년 8월 기준 1 SDR은 약 1.4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. (출처: 한국은행, 기획재정부, IMF 등)